

# 이종묵의 한시마중

gibong



## 소개글

동아일보에 연재된 시를 원문과 해석을 발췌편집하여 옛신문을 들추지 않고도 쉽게 볼 수있게 하였다.  
먼저 동아일보와 이종묵교수께 감사드리며 이자료를 스캔하여 주신 박이수선배께도 감사드린다.

# 목차

1	십삼일벽파정대인 -노순신-	5
2	즉사시아배 -임헌회(1811-1876)-외	6
3	석경엽 -신위(1769-1845)-	7
4	등산유감 -정총- 외	8
5	미인-성로(1550-1615)	9
6	추야우증 -최치원	10
7	식후 -오숙(1592-1634)- 외	11
8	김자고가 만두를 보내주어-서거정(1420-1488)- 외	12
9	추일 -권우(1363-1419)-외	13
10	도중 -이공무-	14
11	남포로화 -허훈(1836-1907)- 외	15
12	기원주목사하윤원체귀 -윤감-	16
13	추일전가족사 -김윤안(1562-1620) - 외	17
14	신설 -이송인(1347-1392)	18
15	철령 -정도전(1342-1398)-	19
16	속리산을 찾아가며 -김찬흠-	20
17	약재 김구용시에 차운하다 -박의중(1337-1403)	21
18	상월 -이행-외	22
19	낭중 하천단이 흥시를~ -이규보- 외	23
20	백발자조 -장지완-	24
21	우제 -이정주-	25
22	촌요 -이규상-	26
23	새벽에 연안을 떠나며 -이덕무-	27
24	새벽에 일어나서 -이색(1328-1396)- 외	28
25	어주도 -고경명(1533-1592)	29

26	배동와 -김육-	31
27	영아무면~ -정식(1601-1663)-외	32
28	금중소 -이규보-	33
29	월절변곡 -이안중-	34
30	장난으로서흥 도호부사~-정약용-외	35
31	송 김락경~ -이용휴-	36
32	관서악부 -신광수-	37
33	경인춘첩 -김안국-외	38
34	신부를 대신하여~ -이재영-	39
35	새벽에 일어나서 팔죽을~ -장유-외	40
36	겨울날 서재에서~ -최기남-	41
37	제 무자신력 -이정형-	42
38	즉사 -유방선-외	43
39	우계 -이우-	44
40	서재에서 벗의 시에~-이언직-	45
41	세시잡영 -이덕무- 외	46

십삼일 벽파정에서 사람을 기다리며(十三日到碧亭待人)-노순신(盧守愼)-

**曉月共將一影行 黃花赤葉政含情**(효월공장일영행 황화적엽정함정)

새벽달 그림자 하나 덜렁 데리고 길나서니 노란국화 붉은 단풍 정을 담뱃 머금었네.

**雲沙目斷無人問 倚遍津樓八九楹**(운사목단무인문 의편진루팔구영)

구름 낀 모래밭 저 먼 곳까지 물어볼 사람 없어 나루의 누각기둥 여덟아홉을 하나하나 기대본다.

즉흥시 지어 아이들에 보이다(卽事示兒輩)-임헌회(任憲晦 1811-1876)-

雨過簾外清風至 午睡初醒百慮輕(우과렴외청풍지 오수초성백려경)

비 그치자 발 너머 맑은 바람 불어와 낮잠에서 막 깨어나니 온갖 근심 사라지네.

一盃濁酒山妻進 且聽群兒讀字聲(일배탁주산처진 차청군아독자성)

아내가 막걸리 한 사발 내어 오기에 여러 아이들 책 읽는 소리를 듣노라

\*양반대열에는 들지 못 했으나 조선중기 시인 이달(李達)의 시

村南村北雨晴初 舍下瓜田手自鋤(촌남촌북우청초 사하과전수자서)

앞마을 뒷마을에 비가 막 그치니 집 아래 외밭은 손수 호미질 하네.

深巷日長無箇事 樹陰移榻課兒書(심항일장무개사 수음이탑과아서)

깊은 골목 해가 긴데 할 일 없어서 그늘아래 평상 옮겨 아이놈 책을 읽힌다.

\*임헌회의 후학으로 조선유학의 끝자락을 붙잡았던 곽종석(郭鍾錫)의 불행한 삶에도~

但願吾家求自福 妻□兒讀不憂貧(단원오가구자복 처로아독불우빈)

‘그저 원 하는 것 우리 집 절로 복을 구하여 아내는 길쌈하고 아이는 책을 읽어 가난걱정 없는 것이요’ 라는 춘첩자(春帖子)를 붙여 단란한 가정을 축원하였다고 한다

돌길의 낙엽(石徑葉) -신위(申緯,1769-1845)-

背石茅菴一徑廻 山寒烏□染紅催 (배석모암일경회 산한오구염홍취)

바위를 등진 암자 가는 고불고불 오솔길 하나 산속 추위에 오구나무는 바빠 붉게 물드네.

夕陽翳翳□鳴葉 有箇詩人覓句來 (석양에에혜명엽 유개시인떡구래)

어슴푸레한 저물녘에 낙엽 밟는 짚신소리 어떤 시인이 시구를 찾아 이곳으로 오시는가.

산을 오르면서 느낀 생각(登山有感)-정충(鄭攄,1358-1397)-

步步方知眼界寬 無邊山海一時看(보보방지안계관 무변산해일시간)

한 걸음 한 걸음 오르자 시야가 트이더니 저 끝없는 산과 바다가 단숨에 다 보이네.

學人用力當如此 莫爲高堅廢仰鑽(학인용력당여차 막위고견폐양찬)

공부하는 사람들아 마땅히 이렇게 힘을 쏟아야지 높고 굳은 그곳으로 나아갈 것 꺼리지 말지니.

\* “산을 오르면서 돌아본 것은 학문입니다, 높은 산은 한걸음 오를 때마다 시야가 넓게 트입니다. 학문도 마찬가지겠지요. -정충-

\*통쾌하지 아니 한가(不亦快哉行)-정약용(丁若鏞)

□ 嶢絕頂倦游 □ 雲霧重重下界封(초요절정권유공 운무중중하계봉)

깎아지른 절정을 힘겹게 올랐을 때 겹겹의 운무가 시야를 막고 있다.

向晚西風吹白日 一時呈露萬千峯(향만서풍취백일 일시정로만천봉)

저녁무렵 서녘바람이 해를 향해 불어와 천만개 봉우리가 일시에 다 드러나면.

不亦快哉(불역쾌재)/그 얼마나 통쾌한가!

\*南冥 曹植의 지리산 遊覽名言~

看山看水看人間世(간산간수간인간세) /산을보고 물을보고 사람을보고 세상을본다.

\*論語에 성현의 경지가 어려우니 研鑽(學文을 깊이 연구함)을 거듭하라는 뜻으로~

仰之彌高鑽之彌堅(양지미고찬지미견) /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고, 뚫을수록 더욱 견고하다.

\*또한 조선중기 학자 盧守愼은 같은 뜻으로 말하길~

登山而不志於絕頂(등산이부지어절정) /산에 오르면서 정상에 뜻을 두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다.

고운사람(美人)-성로(成輅,1550-1615)-

臺上秋光露落初 興來呼酒問魚蔬(대상추광로락초 흥래호주문어소)

돈대에 이슬이 막 내려 가을빛 서렸기에 흥이 일어 생선과 채소 안주에 술을 찾았네.

美人手把丹楓葉 笑道山翁醉面如(미인수파단풍엽 소도산옹취면여)

고운여인이 붉은 단풍잎을 손에 들고 와 시골늙은이 취한 얼굴 같다, 웃으며 말하네.

\*17세기문인 신정(申晳)의 시

女兒始學語 折花以爲娛(여아시학어 절화이위오)

어린 딸 말 배우기 시작하자, 꽃을 꺾어 장난을 치네.

含笑問爺孃 女顏花似無(함소문야양 여안화사무)

웃으며 아버지에게 묻기를, 제 얼굴 꽃과 같지 않느냐고.

가을밤비 내리는데(秋夜雨中)-최치원-

**秋風唯苦吟 舉世少知音**(추풍유고음 거세소지음)

가을바람에 시나 괴롭게 읊조릴 뿐, 온 세상에 나를 알아줄 이 없구나.

**窓外三更雨 燈前萬里心**(창외삼경우 등전만리심)

창밖에는 한밤 추적추적 내리는 비, 등불 앞에는 만리를 달리는 마음.

밥먹고나서(食後)-오숙(吳□,1592-1634)-

**食後徐行向菜田 病妻隨後稚兒先**(식후서행향채전 병처수후치아선)

밥 먹고 느릿느릿 채마밭으로 나서는데, 병든 아내 뒤 따르고 아이놈은 앞장서네.

**人生此樂餘無願 誰自勞勞送百年**(인생차락여무원 수자로로송백년)

인생의 이 즐거움 더 바랄 것이 없어라, 누가 백년인생 아등바등 고생하며 사는가.

\*손님에게 답하다(答賓) 18세기 委巷의 시인 -장혼(張混)-

**籬角妻舂粟 樹根兒讀書**(리각처용속 수근아독서)

담 모퉁이에서 아내는 절구질하고 나무아래서 아이는 책을 읽는다.

**不愁迷處所 卽此是吾廬**(불수미처소 즉차시오려)

내 사는 곳 못 찾을까 근심 말게나, 바로 이러한 곳이 나의 집이라네.

김자고가 만두를 보내주어(謝金子固送饅頭)-서거정(徐居正,1420-1488)-

**朱□初開見 饅頭白似霜**(주합초개견 만두백사상)

붉은 찬합 막 열어보니, 만두가 서릿발처럼 하얗고.

**軟溫宜病口 恬滑補衰腸**(연온의병구 침활보쇠장)

물랑물랑 따뜻하여 병든 입에 딱 맞아, 매끈매끈 달콤하여 약한 장을 보해주네.

**甕裏挑梅醬 盤中擣桂薑**(옹리도매장 반중도계강)

종지에는 매실로 담근 간장을 담았고, 사발에는 계피와 생강을 찧어서 담았네.

**居然能啖盡 厚意儘難忘**(거연능담진 후의진난망)

금방 싹싹 다 먹어 치우고 나니, 고마운 벗의 정을 잊지 못하겠네.

\*만두는 제갈공명(諸葛孔明)이 만들었다고 하며, 이색(李穡)의 시에 만두에 대해~

**外面團圓雪色凝 流膏內結曉重蒸**(외면단원설색응 유고내결효중증)

둥그스름한 외면에 눈빛이 희게 엉겼는데, 안에 기름을 넣어 새벽에 두 번 찐다네.

\*조선 중기 이응희(李應禧)의 시에 만두에 대해~

**玉屑□金粟 銀包泛鐵鍋**(옥설도금속 은포범철과)

옥가루 같은 노란 좁쌀로 소를 만들어, 하얀 피에 싸서 쇠솥에다 삶았네.

가을날(秋日) -권우(權遇,1363-1419)-(조선 초기 대학자 권근(權近)의 아우)

竹分翠影侵書榻(죽분취영침서탁)/대는 푸른 그림자를 나누어 책상에 스미게 하고,

菊送清香滿客衣(국송청향만객의)/국화는 맑은 향기 보내어 나그네의 옷을 채우네.

落葉亦能生氣勢(낙엽역능생기세)/떨어진 나뭇잎도 기운을 낼 줄 아는가 보다,

一庭風雨自飛飛(일정풍우자비비)/온 뜰에 비바람 소리 내며 절로 날아다니니.

\*산사에서 밤에 읊조리다(山寺夜吟) -조선 중기의 문인 정철(鄭澈)-

蕭蕭落木聲 錯認爲疏雨(소소낙목성 착인위소우)

우수수 잎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, 성긴 비 내리는 줄 잘못 알았네.

呼僧出門看 月掛溪南樹(호승출문간 월괘계남수)

중을 불러 문 밖에 나가보라니, 시내 앞 숲에 달이 걸렸습디다.

\*당나라 때 無可上人이라는 승려는~

聽雨寒更盡 開門落葉深(청우한경진 개문낙엽심)

빗소리 들으며 찬 밤 다 새우고 나서, 문을 열고 밖을 보니 낙엽이 수북하네.

길을가다가(途中)-이공무-(18세기 뛰어난 학자요 문인 이덕무(李德懋)의 아우)

**馬蹄霜踏白 牛角日迎紅**(마제상담백 우각일영홍)

말발굽은 서리를 밟아 하얗고, 쇠뿔은 햇빛을 받아서 빨갈네.

**樹脫禽身露 山扉鎖霧中**(수탈금신로 산비쇄무중)

나뭇잎 지자 새는 흰히 보이는데, 산중의 집은 안개에 잠겨있네.

\*목동(牧童) -18세기 초반 시인 유동양(柳東陽)-의 시

**驅牛赤脚童 滿載秋山色**(구우적각동 만재추산색)

소 몰고 오는 맨발의 아이놈, 소 등에 가을 산 빛을 가득 실었네.

**叱叱搔蓬頭 長歌歸月夕**(질질소봉두 장가귀월석)

이랴, 이랴 더벅머리 굵적굵적, 달 뜬 밤에 노래 부르며 돌아오네.

남포의 갈대꽃(南浦蘆花)-허훈(許薰,1836-1907)-

蟹□漁灣一色長 脩脩蘆荻已秋光 (해서어만일색장 수수로적이추광)

계와 생선 잡는 개펄은 온통 흰빛이니, 길게 자란 갈대는 벌써 가을빛이 들었네.

清晨□子推篷戶 錯道江天落早霜 (청신소자추(퇴)봉호 착도강천락조상)

맑은 새벽 사공이 거적을 밀고 나서더니, “강마을에 하마 서리 내렸나” 가우뚱 하네.

위의 한자로는 추(推)로 되었으나 한글은 퇴(堆)표현되어 원문 환인 하기바람.

\*이학규(李學逵)가 귀양살이 하며 어부가 고기잡이 나가는 풍경을 노래한 시.

蘆花浦上月紛紛 夜야朝嘲百鳥聞 (노화포상월분분 야야조조백조문) □+夜(새가밤에울야)

포구의 갈대꽃 달빛에 어지러운데, 온갖 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어 데네.

卻喜降霜蟲信至 盡提笻□下湖賁 (극희강상충신지 진재령성하호분)

좋아라, 서리 내리고 벌레울음 들리자, 모두들 다래끼 들고 남호로 내려가네.

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원주목사 하운원에게(寄原州牧使河允源遞歸)-운감-

**兒嬉在母側 恩愛尙未知**(아희재모측 은애상미지)

아이가 엄마 곁에 있을 때,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지만.

**母去兒啼號 無乃逼寒飢**(모거아제호 무내핍한기)

엄마가 떠나면 아이가 울부짖는 것, 춥고 배고프기 때문이 아니겠소?

**北原往日政 仁德乃如斯**(북원왕일정 인덕내여사)

지난날 원주에서 베푼정치, 인과 덕이 바로 이러하였다지요.

**赫然千載下 再頌召南詩**(혁연천재하 재송소남시)

분명 천년의 세월이 지나가도, 소남(召南)의 시를 읊겠지요.

\*詩經의召南에는 어진 관리의 정사를 칭송하는 시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.

가을날 농가의 풍경(秋日田家即事) -김윤안(1562-1620)-

栗房初坼棗腮紅 手挽長條落滿籠(울방초탁조시흥 수만장조락만롱)

밤송이 막 터지고 대추 볼 붉기에 장대로 털어서 바구니 가득 담는다.

急喚家人□白酒 一邊呼起北隣翁(급환가인추백주 일변호기북린옹)

집 사람 급히 불러 막걸리 거르게 하고 한편으로 뒷집 노인네 오라고 부른다.

\*농가의사계절(田家四時詞)-정흥명-

懸瓠落帶棗顚紅 到處街談樂歲豐(현호락대조시흥 도처가담낙세풍)

매달린 박꼭지 떨어지고 대추볼 붉어지자 가는곳마다 거리에 즐거운 풍년이야기 넘쳐나네.

小婦軟炊香稻飯 手提□□勸衰翁(소부연취향도반 수제정두권쇠옹)

어린 며느리 만нан 밥을 고이 지어다가 손수 소반에 들고 늙은 시아버지께 권하네.

새로 내린 눈(新雪)-이승인(1347-1392)-

蒼茫歲暮天 新雪遍山川(창망세모천 신설편산천)

아스라한 세모의 하늘 첫눈이 산천을 뒤덮었네.

鳥失山中木 僧尋石上泉(조실산중목 승심석상천)

새들은 산속의 나무를 잃었고 스님은 돌 위의 샘물을 찾네.

飢鳥啼野外 凍柳臥溪邊(기오제야외 동류와계변)

굶주린 까마귀들 밖에서 우짖는데 언 버드나무 시냇가에 누워있네.

何處人家在 遠林生白煙(하처인가재 원림생백연)

어디에 인가가 있는지 먼 숲에서 흰 연기 일어나네.

철령에서(鐵嶺) -정도전(1342-1398)-

鐵嶺山高似劔鋦 海天東望正茫茫(철령산고사검망 해천동망정망망)

철 령의 높은 멧부리는 칼날과도 같은데 동쪽으로 바다와 하늘은 아득하기만 하네.

秋風特地吹雙□ 驅馬今朝到朔方(추풍특지취쌍빈 구마금조도삭방)

가을 바람은 유독 귀밑머리에만 불어오는데 말을 몰고 오늘아침 북녘 변방에 왔노라.

속리산을 찾아가며(訪俗離山)-김찬흠-

江南遊子不知還 古寺秋風杖□閒(강남유자부지환 고사추풍장구한)

강남 간 나그네 돌아올 줄 모르는데 가을바람 부는 옛 절엔 행장이 한가롭다.

笑別鷄龍餘興在 馬前猶有俗離山(소별계룡여흥재 마전유유속리산)

웃으며 계룡산 떠나도 흥이 남아있으니 말 앞에는 다시 속리산이 버티고 있기에.

\*김찬흠의 400수 가까운 연작시 갈역잡영(葛驛雜詠)중의 한 시

尋常飯後出荊扉 輒有相隨粉蝶飛(심상반후출형비 첩유상수분접비)

심상하게 밥 먹고 사립문 나서면 그때마다 범나비 나를 따라 나서네.

穿過麻田□麥壟 草花芒刺易□衣(천과마전이맥릉 초화망자이건의)□+員?

삼밭 뚫고 보리밭둑 고불고불 걸어가니 들풀의 가시가 쉬이 옷에 걸리(□)네.

약재 김구용 시에 차운하다.(次金若齋九容韻)-박의중(1337-1403)-

**杜門終不接庸流 只許靑山入我樓**(두문종부접용류 지허청산입아루)

문 닫아걸어 용렬한 무리들 접하지 않고 오직 청산만 내 누대에 들어오게 하노라.

**樂便吟哦慵便睡 更無閑事到心頭**(낙편음아용편수 갱무한사도심두)

즐거우면 시 읊고 싫증나면 조나니 다시 한가한 일조차 마음에 이르지 않네.

\*같은 시대 고단한 삶을 노래한 김극기(金克己)의 시구

**林鳥有情啼向客 野花無語笑留人**(림조유정제향객 야화무어소유인)

숲의 새는 정이 있어 나그네 보고 우는데, 들꽃은 말없이 웃으며 나를 잡아끄네.

서리같이 흰 달(霜月)-이행-

晚來微雨洗長天 入夜高風捲暝烟(만래미우세장천 입야고풍권명연)

저물녘에 가랑비가 넓은 하늘 씻어 내더니 밤 되어 높은 바람이 저녁 어스름 걷어갔네.

夢覺曉鍾寒徹骨 素娥青女鬪嬋妍(몽각효종한철골 소아청녀투선연)

새벽 종소리에 꿈 깨자 추위가 뼈에 스미는데 흰 달과 푸른 서리가 고운 자태를 다투네.

\*霜月(서리같은 달빛)-이진망(李眞望)-18세기 전후 문인.

嚴霜如月月如霜 一壑渾成皎皎光(엄상여월월여상 일학혼성교교광)

달빛 같은 서리에다 서리 같은 달빛이 온 골짜기에서 뒤섞여 밝은 빛이 되었네.

中夜開窓風洒面 居然高興却呼觴(중야개창풍쇄면 거연고흥각호상)

한밤중 창을 여니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우뚝 높은 흥이 일어 술 한 잔 찾노라.

낭중 하천단이 홍시를 보내준데 감사하여(謝河郎中千且送紅柿)-이규보-

飽霜方爛熟 濡及病中唇(포상방란숙 유급병중진)

서리 듬뿍 맞아 막 잘 익은 홍시가 병든 내 입술을 촉촉하게 적혀주네.

膚□紅□色 膏流赤玉津(부아홍초색 고유적옥진)

성홍 빛 비단 같은 껍질이 터지자 붉은 옥의 진액처럼 기름이 흐르네.

\*시골 사람이 홍시를 보내었기에(野人送紅柿)-李奎報(1168-1241)

味如飴蜜還如乳 解止兒啼作笑媒(미여이밀환여유 해지아제작소매)

꿀이나 젓, 우유처럼 맛이 좋기에, 우는 아이도 달래어 웃게 한다네.

\*유방선(柳方善)의 시구 중 홍시에찬

近唇皮自坼 濺齒味殊甘(근순피자택 천치미수감)원문에는 ‘唇’

입술에 대면 껍질이 절로 터지고, 이빨에 닿으면 맛이 더욱(殊) 달다네.

#놀랄진(唇), 입술순(脣)은 다른 자로 唇을 “입술순” 으로 옛글에 통용하던 것은 잘못이며.

殊(죽일수)는 다른 것에 비해 특별히 다름을 강조하는 말로 주로 쓰인다.

\*서거정(徐居正)의 시구 중 홍시에찬.

軟宜消渴病 恬可愈頭風(연의소갈병 첨가유두풍)

부드러워 당뇨를 멎게 하겠고 달아서 두통을 낮게 하겠네.

當唇快一吸 肺渴今復喜(당순쾌일흡 폐갈금복희)원문에는 ‘唇’

입술에 닿자 한 입에 쑥 들어오니 마른폐가 이제다시 기뻐한다네.

適口是仙藥 誰云爲滯氣(적구시선약 수운위체기)

입에 맞아 절로 신선의 약이라, 누가 체증이 생긴다 하였던가.

백발을 스스로 비웃다.(白髮自嘲) -장지완-

人憎髮白我還憐 久視猶成小住仙(인증발백아환련 구시유성소주선)

남들은 허연 머리 싫어해도 나는 좋아라, 한참 보면 잠시 머무는 신선 같지 않더냐?

回首幾人能到此 黑頭爭去北邙阡(회수기인능도차 흑두쟁거북망천)

돌러보면 그 몇이나 이때까지 살았는가? 검은 머리에도 다투어 북망산천 가버린 것을.

\*당나라 시인 李商隱(이상은)의 시

曉鏡但愁雲鬢改 夜吟應覺月光寒(효경단수운빈개 야음응각월광한)

새벽거울에 고운머리 센 것이 근심스러운데 밤에 시를 읊조리다보니 달빛이 차구나.

\*신라 말 문인 崔匡裕(최광유)의 시 한 토막

鬢改顏衰曉鏡新(빈개안쇠효경신)/센 머리 시든 얼굴에 새벽거울 이 새로워라.

\*소동파의 글에 나타난 늙음에 비애 -소동파-

人老簪花不自羞 花應羞上老人頭(인노잠화부자수 화응수상노인두)

사람은 늙어도 꽃 꽂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꽃은 노인머리에 오르는 것 창피해하겠지.

\*金昌翕(김창흡)은 “늙음을 잊으면 노망이 든 것이요, 늙음을 탄식하면 추한 것이다” 고 말하며 늙음을 탄식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.

우연히 짓다(偶題)-이정주-

**短夢初醒境絕幽 小爐殘火試茶甌**(단몽초성경절유 소로잔화시다구)

선잠자다 막 깨어나니 너무 호젓하기에 작은 화로의 스러지는 불에 차를 달인다.

**草間蟲語松間月 并作山家半夜秋**(초간충어송간월 병작산가반야추)

풀숲의 벌레울음과 소나무위에 뜬 달이 아우러져 한밤 산속의 가을 풍경을 만드네.

\*사계절 운치 있는 삶을 노래한-이색-

**春花如錦我所折 秋月如波我所悅**(춘화여금아소절 추월여파아소열)

비단 같은 봄꽃은 내가 꺾고 자 하는 것, 강물 같은 가을 달은 내가 좋아 하는 것.

**冰峯竹簟我所坐 雪水茶甌我所啜**(빙봉죽점아소좌 설수다구아소철)

얼음덩이 깔아놓은대자리는 내가 앉고 싶은곳, 눈녹인 물로 끓인차는 내가마시고 싶은것.

시골의 노래(村謠) -이규상-

豆飯□漿暖似春 菁根軟白作菹新(두반감장남사춘 청근연백작저신)

콩밥에 뜨물국이 봄처럼 따스한데 여리고 허연 무로 김치 새로 담았네.

田家晚食甘如蜜 不識人間有八珍(전가만식감여밀 불식인간유팔진)

시골 살이 늦은 저녁밥 꿀처럼 달기에 인간세상 산해진미도 알 것 없다네.

\*연작 시골의 노래-이규상-

茅簷四面竹籬遮 射出燈光一道斜(모침사면죽리차 사출등광일도사)

초가는 대울타리를 사방에 둘러쳤는데 한줄기 등불이 비스듬히 새어나오네.

少婦罷舂先倦睡 老姑閒坐運□車(소부파용선권수 노고한좌운집거)

젊은 며늘아기 방아 찧고 먼저 잠들었는데 늙은 할멈 한가하게 앉아 물레질 하네.

새벽에 연안을 떠나며(曉發延安) -이덕무-

不已霜鷄郡舍東 殘星配月耿垂空(불이상계군사동 잔성배월경수공)

그치지않는 새벽닭소리 객사동쪽에 들리는데 스러지는 별빛은 달과 짝해 하늘에 반짝반짝.

蹄聲笠影曠□野 行踏閨人片夢中(제성입영몽롱야 행답규인편몽중)

말발굽 소리 삿갓그림자 몽롱한 들판 길을 두고온 여인의 조각 꿈을 밟으면서 간다네.

새벽에 일어나서(晨興卽事) -이색(1328-1396)-

湯沸風爐雀噪簷 老妻盥櫛試梅鹽(탕비풍로작조침 로처관즐시매염)

풍로에 물 끓고 처마에 참새가 우짖는데 늙은 아내는 세수하고 음식 간을 맞추네.

日高三丈絢衾暖 一片乾坤屬黑恬(일고삼장주금난 일편건곤축흑침)

해가 중천높이 솟아도 이불이 따스하여 온 천지를 새까맣고 달썩한 잠에 붙인다네.

\*술회(술회)-유방선-

日日掩柴荆 朝眠午始醒(일일엄시형 조면오시성)

나날이 사립문 닫아걸고 한낮이 되어서야 아침잠 깨었더니.

山童新汲水 石鼎煮參苓(산동신급수 석정자삼령)

아이놈이 새로 물을 길어다가 돌솥에다 인삼과 복령을 달이네.

\*조선중기의 문인 이식의 시

兒呼進盥睡方晏 客來對局衣始□(아호진관수방안 객래대국의시환)

아이놈 세수하라 깨워야 느지막이 일어나 손님 와서 바둑두자할 때 그제야 옷을 걸친다네.

人生此是真解脫 何必無身乃無患(인생차시진해탈 하필무신내무환)

인생이 이러해야 진정한 해탈이라 할지니 하필 육신이 사라져야 근심이 사라지겠는가?

고기잡이배 그림(漁舟圖)-고경명(1533-1592)-

蘆洲風□雪漫空 沽酒歸來繫短篷(노주풍점설만공 고주귀래계단봉)

갈대 섬에 바람 불어 눈이 허공에 가득한데 술 사러 갔다 와서 작은 배를 매어두었네.

橫笛數聲江月白 宿禽飛起渚烟中(횡적수성강월백 숙금비기저연중)

비껴 부는 통소소리 흰한 강물 위 달빛 등지에 자던 새 물가 안개 속을 날아오르네.

排冬窩(배동와)-김육-

雪滿山中雲正陰 綿衾豆粥一窩深(설만산중 운정음 면금두죽일와심)

눈 수북한 산속에 구름이 어둑하기에 솜이불에 콩죽으로 집안 깊이 박혔더니.

玄冥凜烈驅寒氣 直到窓前不敢侵(현명능렬구한기 직도창전 불감침)

동장군이 맹렬하게 한기를 몰아다가 곧장 창 앞에 이르러서는 들어오지 못하네.

\*啜菽飲水(철숙음수)/공자가 “콩죽을 먹고 물을 마시더라도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을 극진이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효” 라고 한, 故事成語.

\*豆粥溫突 足可觀書(두죽온돌 족가관서)/宋時烈이 “콩죽에 온돌방이면 책보기에 충분하다”

긴긴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침상 곁에서 갑자기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에 기뻐서 짓다.(永夜無眠, 枕上忽聞, □鳴, 喜賦)-鄭□  
(1601-1663)-

**永夜無眠數點燈 屏間懶僕喚生憎**(영야무면삭점등 병간나복환생증)

긴긴밤 잠 못들어 자주 등불 밝히고 병풍너머 게으른 종놈 알미워 불러보네.

**忽聞膊□鄰□唱 更覺靈臺爽氣清**(홀문박픽인계창 경각영대상기청)

홀연 이웃에서 닭이 설 새 없이 울기에 그제야 내 마음이 상쾌해짐을 알겠구나.

\*노쇠함을 탄식하며(歎衰)-趙泰采-

**病齒時存凡幾箇 衰毛日落許多莖**(병치시존범기개 쇠모일락허다경)

병든 치아 있을들 몇 개나 되겠는가? 시든 백발 나날이 빠지니 몇 가닥 남았나?

**坐常垂首惟眠意 起輒扶腰自痛聲**(좌상수수유면의 기침부요자통성)

앉으면 늘 졸음이 쏟아져 잠 생각만 간절하고, 일어날 때 허리 잡고 아이쿠 소리 지른다.

\*-李福基-

**老年寢事未全成 初夜昏昏後夜清**(노년침사미전성 초야昏昏후야청)

노년이라 잠자는 일이 잘 되지 않아, 초저녁엔 꾸벅꾸벅 깊은 밤엔 말뚱말뚱!

\*-鄭□-

**老去閒無事 光陰閱往來**(노거한무사 광음열왕래)

늘그막에 한가하여 일이 없기에, 세월이 오고 가는 것 살펴보느라.

**一窓明暗裏 惟覺百年催**(일창명암리 유각백년취)

창문 하나 밝았다 어두워지는 사이에, 그저 백년인생 바빠 감을 알겠네.

이불 속에서 웃을 일(衾中笑)-이규보-

**笑中第二又誰是 爲吏稍貪深自祕**(소중제이우수시 위이초탐심자비)

세상사 웃을 일 중에 둘째는 그 무엇인가? 관리되어 탐욕을 혼자 깊이 숨기는 일이라네.

**一物入門人盡知 對人好說清於水**(일물입문인진지 대인호설청어수)

물건하나 그문으로 들어가도 남이 다아는데 남들에겐 제가 물보다 맑다고 떠들길 좋아하니.

\*1236년 70대 재상으로 있을 때 -이규보-

**人間可笑事頻生 晝日情多笑未遑**(인간가소사빈생 주일정다소미황)

인간사 우스운 일 자주 일어나지만 낮에는 정이 많아 웃을 겨를 없다가.

**半夜衾中潛自笑 殷於手拍口兼張**(반야금중잠자소 은어수박구겸장)

한밤에 이불속에서 몰래 혼자 웃자니 박장대소(拍掌大笑)도 이보다 못하리라.

月節變曲(월절변곡)-이안중-

今夜不張燭 不見阿郎面(금야부장촉 불견아랑면)

오늘밤 촛불 켜지 않았더니, 낭군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.

但聞香氣息 朝來對鏡看(단문향기식 조래대경간)

향긋한 숨소리만 들리더니 아침에 거울보고 하는 말,

如何臉邊朱 一半着郎面(여하검변주 일반착랑면)

어찌하여 제 뺨에 바른 연지가 낭군얼굴에 반이나 묻었나요?

장난으로 서흥 도호부사 임성훈군에게 주다(獻贈瑞興都護林君性運).-정약용-

西關十月雪盈尺 複張軟□留款客(서관십월설영척 복장연구유관객)

관서땅 시월이면 눈이 한 자 넘게 쌓이리니 겹겹히장 부드러운 담요에 손님을 잡아두고는.

笠樣溫銚鹿鬢紅 拉條冷麪菘菹碧(입양온요녹련홍 남조냉면송저벽)

삿갓모양 뜨거운 술뚜껑에 벌건 노루고기구워 나뭇가지꺾어서 냉면에 퍼런배추절임 먹겠지.

\*정약용의 후학 趙斗淳이 마포에서 지은 시

笙簫迭發鬧西樓 驟雨斜風颯似秋(생소질발료서루 취우사풍삽사추)

풍악소리 서쪽누각에 요란하게 울리는데 소나기에 저녁바람불자 가을처럼 시원하네.

賴有芳隣新手法 箕城冷麪沃人喉(뢰유방린신수법 기성냉면옥인후)

옆집 고운여인이 새로 배운 솜씨 발휘한 평양냉면이 사람의 목구멍을 시원하게 하네.

문주사또로 가는 김탁경조운을 보내며(送金擢卿朝潤之任文州)-이용휴-

失手誤觸刺 不覺發痛聲(실수오촉자 불각발통성)

잘못하여 가시에 찔리면 저도 모르게 아아 소리를 내지.

須念訟庭下 露體受黃荊(수념송정하 노체수황형)

유념 하거나 재판받는 자리는 벌거벗은 몸에 가시가 닿는 것임을.

\*목민관으로 가는 또 다른 벗에게 -이용휴-

嬰亞喃喃語 其母皆能知(영아남남어 기모개능지)

어린 아기 칭얼대는 소리를 그 어미라면 다 알아 듣는 법.

至誠苟如此 荒政豈難爲(지성구여차 황정기난위)

지극정성이 정말 이와 같다면 흉년의 정치 무엇이 어렵겠나.

\*목민관의 귀 담아 둘 글귀(남편을 섬기는 아낙처럼 백성을 배려하라는 뜻)

村婦從兩犬 袴□盛午□(촌부종양견 고로성오엽)

시골아낙 두 마리 개를 쫓아 광주리에 점심밥 담아가는데.

或恐蟲投羹 覆之以瓠葉(혹공충투갱 복지이호엽)瓠흘러떨어질확,표주박호

벌레가 혹시 국에 빠질까 호박(瓠)잎으로 덮어 두었네.

關西樂府(관서악부)-신광수-

**臘月氷江雪馬馳 馬頭皆挾一蛾眉**(납월빙강설마치 마두개협일아미)

선달 강강 언 강에서 설매를 지치는데 설매 앞에 미인 한명씩 끼고 있다네.

**黃昏慕轉琉璃鏡 笳吹還營到亥時**(황혼묵전유리경 가취환영도해시)

황혼 녘 유리거울 위를 타고 다니다가 피리 불며 감영에 돌아오니 밤이 깊었네.

경인년의 춘첩자(庚寅春帖)-김안국-

萬姓呼飢欲轉溝 一家寧忍飽無憂(만성호기옥전구 일가녕인포무우)

만백성 굶주려 구렁에 자빠질 듯한데 우리 집만 근심 없이 배부를 수 있으랴.

新年未暇祈私願 豐樂謠歌遍八區(신년미가기사원 풍락요가편팔구)

새해에는 개인의 축원을 할 겨를 없으니 풍년의 노랫가락이 팔도에 두루 퍼지기를.

\*1788년 설날에 한해를 기원하는 祈歲詞 -산청현감 南公轍(남공철)-

但願家家長富足(단원가가장부족)/다만 원하는바 그저 집집마다 늘 풍족한 것.

男不啼寒女不飢(남부제한녀불기)/남자는 추위에 여자는 굶주림에 울지 않고.

輕舟作商重船歸(경주작상중선귀)/빈 배로 장사나간 이는 만선으로 돌아오고.

大□引犢□哺兒(대자인독계포아)/큰 암소 송아지 끌고 닭은 병아리 먹이 주고.

麥穗兩□稻早熟(맥수양기도조숙)/보리 싹은 두 갈래로 패고 벼는 일찍 익고.

拾線盈筐蠶滿室(습선영광잠만실)/면화는 광주리 수북이 누에는 방 가득하고.

秋來及期償官租(추래급기상관조)/가을 추수하여 관아에서 끈 곡식을 갚고.

賦餘將取作裙襪(부여장취작군말)/세금내고 남아 치마와 버선을 장만할 수 있고.

終年不見吏剝門(종년불견이박문)/한 해 내내 아전이 문 두두 리 지 않고.

巷閭安閒狗不驚(항려안한구불경)/길거리가 조용하여 개가 짖는 일 없기를.

신부를 대신하여 속마음을 적어 부친께 바친다.(代新婦言懷呈其大人翁五絶)-이재영-

**阿姑嗔我曉眠甘 姑嗜昏眠我熟諳**(아고진아효면감 고기혼면아숙암)

시어머니 내 새벽잠 달게 잔 다 꾸짖지만, 시어머니 저녁잠 좋아함은 내 잘 안다네.

**就訟舅前優判得 昏眠宜女曉宜男**(취송구전우판득 혼면의녀효의남)

시아버지께 재판해 달라 청하였더니 “저녁잠은 아낙네 아침잠은 사내에게 좋지”

\* 며느리들의 소원

**多情三月長長雨 一月梳頭一月眠**(다정삼월장장우 일월소두일월면)

다정하게도 석 달 내리 비가 계속내리면 한 달은 머리 빗고 한 달은 잠만 잘 텐데!

\* 연작시 -이재영-

**盡日青山採蕨還 月懸春杵曉歌寒**(진일청산채결환 월현용저효가한)

종일 푸른 산에서 고사리를 캐 돌아오니 달 걸린 절구통에 새벽 노래가 서늘하네.

**多羨隣家曲角□ 夜來猶得一番閒**(다선린가곡각자 야래유득일번한)

이웃집 뿔 굽은 암소가 훨씬 부럽구나, 그래도 밤이 되면 한 번쯤은 한가함을 얻으니.

새벽에 일어나서 팔죽을 먹고 멋대로 시를 읊조리다.(晨起喫豆粥漫吟)-장유-

**珍窮陸海飫羶腴 醉飽居然厲爽俱**(진궁육해어전유 취포거연려상구)

산해진미에 고기까지 실컷 먹고 마침내 술에 취하여 속이 뒤집히는 것보다.

**爭似清晨盥漱罷 一甌豆粥軟如酥**(쟁사청신관수파 일구두죽연여소)

차라리 낫겠지. 맑은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우유처럼 부드러운 한 사발 팔죽 먹는 일이.

\*위 시의 첫째 수에서 -장유-

**霜朝一□調崖蜜 煖胃和中體自安**(상조일완조애밀 난위화중체자안)

서리 내린 아침에 꿀을 탄 팔죽 한 사발에 위가 다습게 풀어지고 몸이 절로 편안해 지네.

\*팔죽 禮讚 시 -이색-

**冬至鄉風豆粥濃 盈盈翠鉢色浮空**(동지향풍두죽농 영영취발색부공)

동짓달 시골이라 팔죽을 뽀뽀하게 쑤어 푸른 사발 가득 담으니 붉은빛이 허공에 어리네.

**調來崖蜜流喉吻 洗盡陰邪潤腹中**(조래애밀유후문 세진음사윤복중)

달싹하게 꿀을 타서 목구멍에 흘려 넣으면 나쁜 기운 다 씻어내고 배속까지 윤이 난다네.

겨울날 서재에서 매화그림을 보면서(冬日書齋看畫梅)-최기남-

**凍塢冰霜繞戶堆 擁爐相伴畫中梅**(동오빙상요호퇴 옹로상반화중매)

경강 언 마을에 얼음과 서리가 문에 수북한데 화로를 낀 채 짝할 벗은 그림속의 매화라네.

**依然少日湖山路 滿袖寒香踏雪迴**(의연소일호산로 만수한향답설회)

소싯적 산수의 흥을 따라다니던 그 길에서 찬 향기 소매 가득 담고 눈 밟고 돌아오는 듯.

\* 冬日書齋看畫梅, (나중에 지은 시) -최기남-

**窮巷寥寥客不來 凍雲晴雪映庭隈**(궁항요요객불래 동운청설영정의)

적막한 뒷골목길이라 찾아오는 이 없는데 언 구름 흰한 눈이 뜰 귀퉁이에 어른어른.

**淸虛果腹忘飢渴 讀易床頭有古梅**(청허과복망기갈 독역상두유고매)

청허가 과연 배를 채워 주림을 잊게 하기에 주역 읽는 책상머리에 늙은 매화 두었다네.

무자년 새해 책력에 쓰다.(題戊子新曆)-이정형-

**時和物阜又年豐 聖善康寧兄弟同**(시화물부우년풍 성선강녕형제동)

계절이 조화롭고 만물이풍성하며 풍년들기를. 부모님강녕하고 형제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.

**春夏秋冬三百日 啣盃取醉樂無窮**(춘하추동삼백일 함배취취악무궁)

봄여름 가을겨울 일 년 삼백육십 일을 술 먹고 즐기면서 즐거움 끝이 없기를.

\* 1606년 동지에 책력에 쓰다.-이정형-

**眼暗耳聾白髮新 五旬已老况六旬**(안암이농백발신 오순이노황육순)

눈 어둡고 귀먹어 백발이 새로운데 오순에도 늙었는데 육순은 어떠하라.

**血氣既衰戒之得 聖師遺訓更書紳**(혈기기쇠계지득 성사유훈경서신)

혈기가 쇠했으면 물욕을 경계하라는 성현의 유훈을 다시 허리띠에 적노라.

즉흥적으로 짓다.(卽事)-유방선-

**臘雪紛紛滿太空 天教三白表年豐**(납설분분만태공 천교삼백표년풍)

어지러운 설달의 눈이 허공에 가득한데 하늘이 세 번째 눈을 내려 풍년을 알리네.

**爭知天上春應好 萬片梨花落晚風**(쟁지천상춘응호 만편리화락만풍)

아마도 천상의 봄은 무척 좋은가 보다 만 조각 배꽃을 저녁 바람에 흩뿌리시네.

\* 함께 지은 두 번째 시 -유방선-

**守歲他鄉不自由 旅魂鄉思兩悠悠**(수세타향부자유 여혼향사양유유)

한해가 저무는데 타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신세 나그네회포와 고향생각이 둘 모두 아득하다.

**滿庭風雪無人語 一點清燈照客愁**(만정풍설무인어 일점청등조객수)

뜰 가득한 바람과 눈에 사람소리 들리지 않는데 한 점 등불이 나그네 시름을 비추네.

\* 규장각에 붙인 글, -徐命膺(서명응)-

**臘雪微三白 豐年綏四方**(납설징삼백 풍년수사방)

설달에 세 번 눈이 내려서 풍년으로 사방이 편안하기를.

**從來八百業 實賴萬千倉**(종래팔백업 실뢰만천창)

팔백년 주나라 왕업도 천개만개의 창고에서 실로 힘입은 것이니.

\*中國俗談

**臘月見三白 田公笑嚇嚇**(납월견삼백 전공소하하)

설달에 세 번 눈 오는 것을 보면 농부가 꺾꺾하고 웃는다.

嚇(위협할 하, 꺾꺾웃을 하, 꾸짖을 혁)

우계에서(羽溪)-이우-

**雪逼窓虛燭滅明 月篩松影動西榮**(설핍창허촉감명 월사송영동서영)

빈 창틈으로 스미는 눈빛에 촛불이 어둑한데 솔가지 빠져나온 달빛이 서쪽처마에 일렁이네.

**夜深知得山風過 墻外蕭騷竹有聲**(야심지득산풍과 장외소소죽유성)

밤 깊어지자 산에 바람 부는 줄 알겠으니 담장너머 대나무 숲에 싹 하는 소리가 나기에.

\* 연작시 3수중 마지막 시구, -이우-

**官倉寥落粟無陳 惟有烟霞屬縣新**(관창요락속무진 유유연하속현신)

관아의 창고는 영락하여 곡식이 남아있지 않은데 오직 안개와 노을만이 고을에 새로 달린 것이라지.

**民□欲醫吾失藥 一方休戚係何人**(민막욕의오실약 일방휴척계하인)

백성들 고통을 치료하려 하여도 내 약이 없으니 온 고을 애환이 누구 손에 달렸는가.

서재에서 벗의 시에 차운하다.(齋舍次友人韻)-이언직-

多謝諸君佩酒來 一軒相對穩開懷(다사제군패주래 일헌상대은개회)

그대들 술 들고 찾아오니 무척 고맙네 마루에서 마주하여 편안히 마음을 여세.

莫嫌歲暮山光淡 春色先從面上廻(막혐세모산광담 춘색선종면상회)

세밀이라 산 빛이 심심하다 꺼리지 말게 봄빛이 먼저 얼굴 위에 돌아오지 않겠나.

\*柏栗寺에서 친구들과 술을 들며 그냥 돌아간 친구 왕자유를 안타가워 하며 -이언직-

雪天山夜喜君來 把酒憑闌更快哉(설천산야희군래 파주빙난경쾌재)

눈 오는 산중의 밤에 기쁘게 자네들 찾아오니 술 들고 난간에 기대 다시 쾌재를 부른다네.

天地中間興無盡 笑他王子到門廻(천지중간흥무진 소타왕자도문회)

하늘과 땅 사이 흥이 끝이 없으니 왕자유가 왔다 그냥 돌아간들 웃고 버려둔다네.

歲時雜詠 -이덕무-

一生心疏懶 每於除夕悲(일생심소라 매어제석비)

한평생 마음이 게으르기에 매년 설달그림이 슬퍼진다네.

長懷除夕心 新年好人爲(장회제석심 신년호인위)

늘 그림날에 이 마음 품는다면 새해엔 좋은 사람 될 수 있건만.

\* 노년의 모습을 바라보며, 이덕무의 친구-朴趾源-

忽然添得數莖髮(홀연첨득수경발)/두어올 검은 수염 갑자기 돋았지만

全不加長六尺軀(전부가장육척구)/육척의 신장은 조금도 자라지 않았네.

鏡裡容顏隨歲異(경리용안수세이)/거울 속 얼굴은 해를 따라 달라지건만.

穉心猶自去年吾(치심유자거년오)/자라지 못한 마음은 지난해나 그대로일세.

# 이종묵의 한시마중

블로그

기봉이재은

<http://blog.daum.net/jaieun>

저자

gibong

발행일

2013.02.05 23:40:21

 블로그